

## 2023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사업

-예술창작 지원분야 심의평

매우 탁월한 기획서는 많지 않았으나, 참신한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작품들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단체와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작품이더라도 신청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원사업의 규모를 늘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일·독립운동사의 구체적 소재 발굴과 활용, 지역 독립운동사의 재조명을 통한 예술창작 활동이 기대됩니다.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이라는 본 사업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적인 표현이나 발표가 아닌, 새로운 장르의 역동적인 창작과 공연을 제안하는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사실을 바탕으로 더욱더 개연성 있고, 입체적인 작품이 준비·공연되기를 희망합니다.

체계적인 준비 계획과 소재 특성상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연계 계획들이 돋보이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참신한 소재 개발과 역사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엿보인 많은 단체들에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자 단체별 지원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디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의 탄생을 위해 본 사업이 부족하나마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 분야에 지원한 다섯 단체의 작품들은 수준이 비슷해 보였으며, 특히 사업 성격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이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어서 경기문화재단의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지원사업의 지속성에 힘을 실게 되었습니다. 제작 분야의 네 개 단체는 다양한 장르, 소재, 지역 분배를 통해 경기도민들과 창작의 무대를 통해 만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원예산이 부득이 축소된 점을 고려하여 준비 분야와 제작 분야 모두 원활히 사업을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장르의 많은 수작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참신하고 사회참여의 의의를 갖는 이 작품들 중 지원작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작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지원금액을 조정해야 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심의위원장	한 ○ 희
심의위원	박 ○ 현
심의위원	박 ○ 아
심의위원	신 ○ 현
심의위원	안 ○ 구